

MEDUCORJE

평화의 모후

2016 제 74 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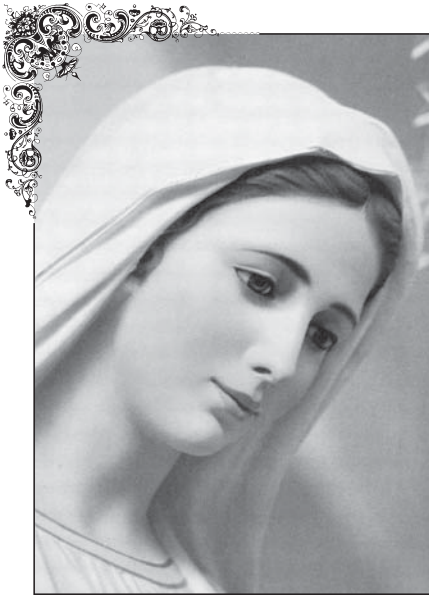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평화롭게 살도록 초대한다.
너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라.
그러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평화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내 평화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여라.
바로 이 평화를 주려고, 내가 너희의 어머니요
평화의 모후로서 이곳에 온 것이란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특별한 축복을 준다.
그 축복을 모든 피조물에게 가져다주어라.
그러면 모두가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8년 12월 25일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아기 예수님의 축복과 함께 2017년 새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 : 오세완 바오로
회장 : 남홍익 그레고리오 및 이사회 일동 드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오늘도 나는, 기도으로 돌아오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다. 이 은총의 시기에,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고 단순한 삶으로 인도하도록 나를 허락하셨다. 단순한 삶이란 작은 것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을 너희의 삶으로 감사 드리는 것이다. 나의 어린 아이들아, 너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대한 사심 없는 너희의 사랑으로 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 아들 예수님 앞에서 너희 모두를 위해 전구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6년 11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2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3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님들께

오세완 바오로 신부

5 사랑은 죄를 은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7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있다.

스테파노 곱비 신부

10 고해성사와 단식으로 돌아 오너라

리비오 신부 / 목격증인마리아 대담

15 주님, 성체안에 계신 당신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스캇한스 교수의 개종 3

22 너희들은 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임마뉴엘 수녀

25 2016년 12월 2일 성모님 메시지

목격증인 미리아나

26 그를 하느님의 손에 맡겨라

베드로 신부 성지순례 체험기

29 성모님, 제 뜻을 드리오니 하느님의 뜻을 저에게 주십시오

엄 엘리자벳

33 운명을 바꾸어 놓은 그리스도의 사랑

팀 버크

35 재정보고 및 쉼터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님을 위하여...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의 영혼을 위하여...
- 돌아가신 부모님의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
- 성모님, 프란치스코의 영혼을 보살펴 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주님께 아들 프란치스코와 스테파노를 봉헌합니다.
- 결혼을 앞둔 큰딸의 혼배성사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 성모님, 수산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아무도 기도해 주는 이 없는 불쌍한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 Homeless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 아들의 사명과 신앙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소서.
- 성모님, 냉담중인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 온 세상에 주님 말씀이 전파되고 생활화 되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 ○○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은총영육간의 은총을 주소서.
- 성모님, 친정 어머니의 영육간의 건강과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에게 축복해주소서.
- 아프리카 선교 사명중에 주님 곁에 간 딸 데레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주님, 할랄 사업체와 운영자들을 봉헌하오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소서.
- 모든 사제들이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안에서 거룩한 사제가 되도록 보호해 주소서.
- 성모님, 평화의 모후 기도회원들과 그 가정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 성모님, 우리 주 수난 24시간 묵상 고리기도 회원들의 기도지향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 예수님,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아들에게 가야 할 길로 인도 해주소서.
- 제니파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정의 은총안에 머물게 하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늘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 냉담중인 딸과 사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교회안에서 성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소서.
- 하느님을 믿지않는 남편과 위기에 있는 저의 결혼생활을 위하여 성모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 결혼을 앞둔 딸과 사위에게 가톨릭 교회 성사의 은총을 믿고 성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 성모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성지순례단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기도지향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 성모님, 도박과 유혹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남편을 보살펴 주시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 세상을 떠난 김귀녀 말가리다 마리아, 선우창원 저스틴, 선우폐기 마가렛의 영혼에게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성모님, 선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의 헌신으로 봉사하고 있는 ○○○형제님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운영하는 사업체를 축복해 주소서.
- 예수님, 루게닉병을 앓고 있는 남편의 치유를 청하며 이 시련을 당신의 사랑으로 견딜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메시지 전파를 위해 일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되어 지도신부님과 봉사자, 후원회원들을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소서.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매일 및 매월 첫 토요일 성모성심 미사와 매월 성모송 1000번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님들께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10월,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메주고리에, 이태리, 루르드, 스페인, 파티마 성모 성지 순례를 하면서 성모님의 역할과 발현에 대한 많은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3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남그레고리오 회장님과 함께했

던 메주고리에 순례를 12년 만에 다시 순례하면서 무척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간 메주고리에의 마을은 많이 바뀌었으며, 12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티칸 조사위원단들이 성모님 발현에 대한 보고서를 교황청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발현 35주년이 되는 메주고리에의 성모님 메시지는 요즘의 우리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영성으로서 인정 되어가고 있으므로, 곧 바티칸 교황청의 인준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금세기에 있어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은 2017년 5월 13일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세 명의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며 봉헌하여라. 나의 티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온 인류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

모님께 대한 신심이 지극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81년 5월 13일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일반 알현 중에 터키인 청년에 의하여 복부에 흉탄을 맞으시고 사경을 헤매 이시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심장 가까이 관통한 총알이 1mm 차이로 대동맥과 척추를 스쳐가면서 중태에 빠진 교황님은 6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4일만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후 교황님은 파티마 성모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하시며 그 총알을 파티마 성모님께 봉헌하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1984년 3월 25일, 드디어 동방교회의 주교들 및 전세계 가톨릭 주교들과 함께 러시아를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께 봉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목격 증인 루치아 수녀는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러시아의 봉헌이 1984년 3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발현 역사의 현장인 파티마 성지와 성모발현지 순례를 하면서 저는 무척 감명을 받았습니다.

1978년, 제가 이태리 라페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때 개인적으로도 가까이 하며 존경하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뒤를 이어 저도 성모신심을 알리는 선교사가 될 것을

나의 티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곧게 결심하였습니다. 파티마에서 마지막 순례 파견미사 후, 남그레고리오 회장님으로부터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지도신부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선교회 초기부터 지도 신부님이셨으며, 제가 존경하던 고 박창득 몬시뇰께서도 몇 년 전부터 저를 지도신부로 추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지난 과정들을 보면서 성모님께서 저를 당신의 시지를 전하는 선교회의 지도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좋은 분들과 선교사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무척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선교회의 지도 신부로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성모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마하 성당과 덴버 성당에서 성모신심을 근간으로 하는 "엠마오피정"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3 월에도 같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모신심에 관련된 좋은 피정을 통하여 성모님의 역할과 그분의 사랑을 널리 보급하고 메주고리에가 성모님의 발현 장소로서 교황청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열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회 후원자 여러분,

2000년 10월 선교회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성모님 메시지 전파 사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으로 도와 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남은 제 여생을 오직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선교사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에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과 은총의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2017년 새해에는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성모님과 더불어 주님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오세완 바오로 드림 **M**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나에게 소중한 장소인 메주고리에 이곳에서 주고 있는 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초대한다. 하느님께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계에 전해서, 미움으로 가득 차 평화라고는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강이 흘러들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 마음 마음이 모두 그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도록 초대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5년 2월 25일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사랑은 죄를 은총으로, 죽음을 부활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마감하며 성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였다. 미사에 앞서 자비의 성문을 닫은 교황은 이어진 미사 강론을 통해 비록 성문은 닫혔지만 우리를 위한 하느님 자비는 계속 열려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자비의 도구가 되어 지속적인 실천을 하기를 요청하였다. 교황은 미사를 마치며 자비의 희년을 되돌아보는 교서에 서명하였다. 교황 교서 '미세코르디아 옛 미세라' (Misericordia et Misera)는 월요일에 발표된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 전문이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그리스도께 드리는 장엄한 전례로 자비의 희년을 마칩니다. 복음 말씀에서는 구원 사업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놀라운 방법으로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되신 이, 왕' (루카23.35,37)의 모습이 아무런 권력도 영광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정복자가 아닌 정복당한 이처럼 보여집니다. 그분의 왕권은 역설적입니다. 십자가 위의 왕좌입니다. 당신의 왕관은 가시관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홀은 없고 손에는 갈대만 주어집니다. 호화스러운 복장은 보이지 않고 겂옷만 있을 뿐입니다. 손가락에는 번쩍이는 반지 대신에 손바닥에 못이 박힙니다. 지니고 있는 보물 하나 없고 은전 30냥에 팔립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진정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요한 18,36) 하지만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바로 사도께서는 두 번째 독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속량과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1코로1,13-14 참조) 그분 왕국의 위대함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이며 모든 것에 다다르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가장 낮은 인간적인 비참함 중에 사셨으며 배신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으시고 묻히시며 저승으로 가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안아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고, 정복당하지도 않았으며 자유가 침범당하지도 않았습니 다. 오히려 모든 믿음과 기다림과 바램을 담은 겸손하신 사랑 (1코린13.7 참조)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적인 죄와 죽음과 공포를 이겨내셨고 계속 이겨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받아들여려면 유혹에 맞서고 십자가를 직시하며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본성이시며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을 (1코 린13.8) 전능하신 사랑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아름 다움의 기쁨을 나눕시다. 그분의 사랑은 죄를 은총으로 변화시키시며 죽음을 부활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며 역사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받아 들이지 못하거나 그분 왕국의 방식을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부질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나타난 이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예수님 외에도 세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더 등장합니다. 바라보고 있는 백성과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선 백성들입니다. 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루카23.35)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 근처로 몰려 들었던 바로 그들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생과 사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혹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예수님의 겸손하신 사랑의 방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있는 우리 안의 내가 불편해서 일까요. 가까이 다가가 곁에 있기 보다는 거리를 두고 창문에서 멀찍이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백성은 실질적인 사랑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오늘 각자에게 자문해 봅시다. '사랑이 내게 요구 하는 것

은 무엇일까요? 나를 어디로 이끌까요? 내 삶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면 될까요?' 다양한 모습을 지닌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군인 그리고 악당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 보거라' (루카23. 35, 37,39) 백성들보다 더 나쁜 유혹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에 악마가 세속적인 논리에 따라 하느님처럼 왕국을 지배해 보라고 유혹하였듯이(루카 4.1-13 참조)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적을 무찌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신이라면 힘과 전능함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직접적으로 해치려는 유혹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 보거라' (37,39절) 다른 이들이 아닌 자신을 말입니다. 힘과 영광과 성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와 세 번째보다 더욱 나쁜 유혹입니다. 존재의 삶에 방식에 대한 공격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침묵하시고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변명을 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으셨으며 사과도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며 사랑이 당신 미래에 대한 답을 줄거라 확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받아들여려면 유혹에 맞서고 십자가를 직시하며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조차도 자주 세속적이며 드러나는 확신을 찾습니다. 얼마나 자주 십자가에서 내려 가고픈 유혹을 받습니까. 권력과 성공에 이끌리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빨리 잇고 쉽고 빠른 길을 택하도록 합니다. 자비의 해는 가장 중요한 정수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분의 진짜 모습과 빛나는 부활, 수용과 자유와 충직함으로 빛나며 재물에 가난하고 사랑에 풍요로우며 선교할 때 젊고 아름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기회를 드리자마자 우리를 기억 하십니다.
모든 죄를 말끔하고 영원하게 지워주고자 하십니다.

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요청합니다. 복음의 심장으로 인도하는 자비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장애가 되는 습관과 버릇을 버리도록 해 줍니다. 불안정한 왕권이나 시대마다 바뀌는 권력에 안주하지 않고 겸손하며 지속되는 예수님의 왕권으로 이끕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42절)라고 청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왕국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간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어려움에도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청하였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43절)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기회를 드리자마자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모든 죄를 말끔하고 영원하게 지워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당신의 기억은 과거의 나쁜 일은 잊고 잘못으로 인해 받은 고통은 헤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기억하는 대신 우리를, 우리 각자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기억하십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새로 시작하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열려 있으며 살아있는 기억이라는 선물을 청합니다. 용서와 화

해의 문을 절대 닫지 않으며 악함과 대립을 넘어서 희망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은총을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시듯, 우리의 공덕을 끝없이 넘어서며, 희망을 키우고, 타인에게도 기회를 주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자비의 성문이 닫히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인 진정한 자비의 문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와 위안과 희망은 늘 피어날 것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자비의 성문을 지나갔으며 멀리까지 주님의 크나큰 선하심이 퍼져 나갔습시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자비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자비를 입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여정을 함께 지속합시다.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계시며 자비로운 교회의 어머니로서 빛을 주시며 모두를 당신 보호 아래 두시기를 원하셨던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청합니다. 당신 아드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선한 도둑이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 들여짐을 십자가 아래에서 보셨습시다. 이분이 자비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소망을 자비로우신 그분께 드립시다. 응답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분이 습니다. **M**

<<http://kr.radiovaticana.va>에서>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마리아 사제운동 25주년 기념일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있다.
594 / 1997년 5월 8일, 파티마(포르투갈)

1. '마리아 사제운동' 탄생 25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네가 나를 공경하며 바치는 나의 이 운동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바로 여기, 나의 파티마 '발현 소성당'에서, 내 티없는 성심의 사랑과 자비의 위대한 계획을 너의 마음속에 계시했으니, 작고 가련한 아들인 너를 뽑아,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2. 그리하여 너는 지금까지 세계 전역으로 너를 이끄는 나를 따라,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오대륙의 여러 나라들을 몇 번이나 순방하곤 했다.

3. 이제 나의 계획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내가 '마리아 사제운동'의 사제들과 함께 모든 자녀들을 불러, 내 티없는 성심에 자신들을 봉헌하도록 해왔으니 말이다.

4.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 천상 엄마의 자비로운 활동으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실현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청해 왔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치

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고, 인류를 하느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로 이끌기 위한 안전한 수단인 까닭이다.

5. 내가 그토록 바라며 당부해 온 봉헌은 이제, '마리아 사제운동'을 통해 세상 어디서나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몸소 내 작은 이들의 군대를 기를 수 있게 되었고, 이 군대로써 나의 가장 큰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6.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바치는 기도 안에 너희를 모아들이려고 요청한 '다락방 모임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가는 가운데 파티마 메시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나는 내 작은 아들인 네가 나에게 대한 공경으로 바치는 이 다락방들을, 곧 도처의 사제들과 신자들, 어린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특히 가정들 사이에 확장되기에 이른 모든 다락방들을 매우 기쁘게 네 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7. 이 다락방들에 의해 너희는 많은 가련한 죄인들,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얻어줄 수 있다.

8. 이 다락방들에 의해 너희는 고통스러운 정화의 대재난기를 단축시키려고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 번 개입해 온 너희 천상 엄마에게 전구와 보상의 큰 힘을 줄 수 있다.

9. 이 다락방들에 의해 너희는 '두 번째 성령강림'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티없는 성심이 새로운 영적 다락방이 되었고, 여기서 하느님의 그 놀라운 일이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0.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의 서약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니, 이는 교황과 그와 결합되어 있는 교회와의 일치 및 사랑과 기도의 서약이다. 나는 이 곳파티마에서 어린이들에게 발현하여 앞으로 교황이 겪을 고통과 반대와 유혈의 시련을 예언하며 환시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예언은 특히 나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실현되고 있다. 이 교황은 내 티없는 성심 안에서 양성을 받은 걸작품이다.

11. 너희는 너희의 사랑과 기도의 서약으로 교황이 최대의 희생을 치를 때 그의 위로와 격려가 된다. 너희의 순종과 순명은 교황의 교도권을 어디서든지 충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 교황과의 일치는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한 이 시대 - 갈수록 더 많이 가르쳐지고 확산되는 오류로 말미암아 수많은 내 자녀들이 만

음을 잃고 있는 시대 - 에 너희로 하여금 확고하게 참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한다.

12. 내가 이곳 파티마에서 25년 전에 '마리아 사제운동'을 일으킨 것은, 많은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배척해 온 파티마 메시지가 너희 시대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13. 그 성취는 위협과 타격을 받고 있는 내 자녀들인 너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 성취는 이토록 상처받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있는 교회가, 고통스러운 유혈의 시련을 통해, 너희 천상 엄마처럼 흠도 주름도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 필요하다. 그 성취는 온 인류로 하여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주 하느님과 의 생명과 사랑의 충만한 친교를 맺을 새 시대를 살게 하는 데 필요하다.

14. 이제 나의 이 계획은 내 티없는 성심이 세상에서 승리함과 더불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15. 내 작은 아들이, 내 교황과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내 운동의 주교들, 사제들, 신자들을 너와 함께 축복한다. 축복한다, 사랑과 기쁨으로, 또 내 말을 귀여겨듣고 나를 따르며 위로하고 찬미하는 너희 엄마로서의 고마운 정으로!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께서 1973 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고해성사와 단식으로 돌아 오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실천하며 살아다오. 그러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란다. 너희는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는 하느님을 너희가 찾아내게 될 것이고, 평화 안에서의 삶으로써 너희는 그 것을 증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아,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희의 마음안으로 들어오시게 해드려라. 너희의 내면과, 너희 주위에 있는 사악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단식하고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6년 10월 25일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묵상)

메주고리에 라디오 마리아의 리비오 신부와 마리아 파블로비치와의 대담

리비오 신부 :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초대는 우리 자신이 먼저 평화를 실천하라는 요구로 들립니다.

마리아 : 그렇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서는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초기에서부터 하신 말씀은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였습니다. 수 천번 반복해 말씀하신 것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연이어 하신 말씀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단식으로 돌아오도록 초대하셨고, 진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고해성사로 되돌아오라고 초대 하셨습니다. 발현이 시작되었던 초기, 성서에 대한 말씀도 포함

되어 있었고, 하느님께 회귀하고 계명으로 회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비오 신부 : 상당히 강렬한 문장이 있군요. "메시지들 없이 너희는 생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단다."라는 말입니다. 삶을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말씀인데요, 이기적인 생활, 허영의 생활을 버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복음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 이겠지요.

마리아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평화 안에서 살면서 비로소 평화를 증거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 있고,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된다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리비오 신부 : 깊이 동감한 말씀은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에 들어가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의 위험성은 다름 아닌 입술로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마리아 : 많은 경우, 우리는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도 못했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많은 말 말, 말만 하고 삽니다. 현대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리비오 신부 : 얼마 전부터 성모님께서는 단식의 중요성에 관해서 거의 말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마리아 : 발현 초기에서부터 물과 빵으로 하는 단식을 요청하셨는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기도와 단식으로 전쟁을 멀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리비오 신부 : 고해성사에 대해 처음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 예, 고해성사에 대해 처음 말씀하시던 날, 당신을 만져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



람들이 성모님께 손을 대었을 때 성모님의 옷에는 크고 작은 자국들이 찍혔습니다. 그 자국들은 죄의 결과들이라고 하였고,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보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제로부터 죄와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거룩함의 여정을 받아 들이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위해 정기적인 고해성사를 보라는 권고를 하였고 성모님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의 고해성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도 고해성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리비오 신부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고해성사를 받는 모습,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모범을 보여 주시면서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과 교황님 사이에는 이런 꼭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 : 그렇습니다. 이런 일치에 저희도 많이 놀라는 것은 교황님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 성모님은 자주 이에 대해 확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성모님의 어느 메시지가 있게 되면 교황님께서 이를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치는 저희에게는 항상 기쁨을 줍니다. 성모님을 따라 살면서 교회의 살아있는 신자들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리비오 신부 : 이번 10월 25일 메시지는 타 메시지들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10월의 메시지들은 대부분 천국, 우리의 목적지, 모든 성인의 날, 연령의 날 등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리아 : 저 또한 그와 비슷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과 교회, 세상 구석구석의 평화가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 축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점에서는 할로윈 데이라는 축제와 장사로 치장을 하며 고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 축일을 성대하게 지낼 준비는 커녕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축일을 지내며 그분들의 모범을 배우려고 해

"어린 아이들아, 그러니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시게끔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야 합니다. 성인 전을 읽고 그분들을 닮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보성인을 정해서 친구처럼 지내라고도 하셨습니다.

리비오 신부: 하지만 비슷한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해성사죠. 현대 본당에서는 모든 성인의 날이나 위령의 날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위령들을 위한 전대사를 청하는 경향도 줄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너희 내면과 주변에 있는 악을 이기기 위해 고해성사와 단식으로 다시 돌아오너라."고 하셨습니다. 성화의 실천으로 초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리아 : 기도하는 사람은 고해성사도 받고 단식도 합니다. 결과는 강하고 바른 사람, 신앙 안에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죄를 거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가난했지만 아버지께서 집 선반 위에 조그마한 상자를 마련하셔서 선교지에 보내는 작은 돈을 모으시곤 했고, 선교사가 방문했을 때 우리가 단식으로 모든 돈을 모두 드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식을 하면서 절제한 것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단식의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현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지나친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의 빈곤, 신앙의 빈곤 등입니다. 최신형의 핸드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목적없이 거리를 헤매는 많은 인파를 볼 때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난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의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성모님께서 기쁨의 선교사, 희망과 위대한 마음을 지닌 선교사로 증거의 삶을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아, 그러니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시게끔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저는 며칠 전 레바논의 티 없으신 성모성심 성지로 조성되어 신앙을 조명하는 센터가 세워질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레바논은 전쟁만 발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리아 사람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리아인들의 기도회 이름은 "평화의 모후 기도회"입니다. 이들은 기도하고 단식하며 생활하고 있



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전쟁은 끝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서 새롭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곳 주교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파괴된 저희들의 고향마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들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리비오 신부 : 성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증인들인데 천국이라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재한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은 진정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 성모님의 현존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천국입니다. 성모님은 이런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에 대한 갈망을 불러넣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없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 대답을 끝내면서 리비오 신부와 마리아 파블로비치 루네티는 '마니피캣'과 '영광송'을 바쳤고 리비오 신부의 강복으로 대답을 마쳤다. **M**

(<http://blog.naver.com>에서 발췌)



주님, 성체안에 계신 당신을 간절히 원하옵니다

대학 총장 보좌

7월의 덥고 건조한 날씨지만 우리는 오래 기도한 응답으로, 처음 만났던 대학 동네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여러 직장에 지원했는데 대학교에서 총장을 보좌하는 직장에서 2년간 일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본 후, 새벽 1~2시까지 연구에 몰두 할 수 있었다. 2년 동안 수 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가톨릭 신학자들의 글을 읽었다.

나는 그들의 영감에 충격을 받고 내 생각과 매우 일치한다는 것에 더욱 놀랐다. 내가 오랜 시간을 들여 발견한 수 많은

소설과 혁신적인것을 그들은 단순하게 추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를 무척 힘들게 했다. 가끔 김벌리에게 책의 일부를 읽어 주기도 했다. "작가가 누군지 들어봐" 아내는 신학자였지만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책을 볼 여유가 없어서 내 옆에 앉아서 듣곤 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 하고 물으면 아내가 대답했다.

"와우, 그건 당신이 버지니아에서 강론한 내용 같아요. 그 시간들이 참 그립네요." 김벌리, 이건 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 안에서의 교회 현장'이야" 아내는 "스캇, 그만 하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톨릭 교회로 부르시는 것 같아

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했다. "이것은 전례에 대한 것인데 매우 흥미로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성공회로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성공회는 개신교와 가톨릭교회 중간에 있는 종교다. 아내가 눈물이 가득 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성공회라니요! 난 장로교 신자예요.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시고 삼촌도 장로교 목사예요. 내 남편도 장로교 목사고, 남동생도 장로교 목사가 되고 싶어해요. 나 자신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난 성공회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김벌리는 마치 나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진 듯한 느낌인 것 같았다.

나는 아내를 위해 심사숙고하게 관련 책을 좀 더 많이 읽으며 몇 달을 지내던 어느 날 밤, 나는 아내 김벌리에게 외쳤다. "김벌리, 나도 아직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로마 가톨릭 교회로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가 절망 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스캇, 우리 그냥 성공회로 가면 안 될까요? 다 괜찮지만 가톨릭 교회만은 절대 안돼요" 이런 나에게 점점 더 절망감에 빠진 아내는 신학자든 목사든 누군가를 보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다.

천주교로 직행하는 길

어느 날 고전과 신약에서 영예로운 피베타 카파학자 (Phi Beta Kappa)의 멤버인 가장 절친한 신학교 친구 게리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신학교 때 유일하게 나와 함께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던 장로교의 오래된 신념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동지였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장로교 우들의 어떤 타협도 거부하며 반대했다.

어느 날 밤, 그의 전화를 받고 부이어 신부 (Fr. Bouyer)의 글을 읽어 주었다. 그러자 게리는 "와, 정말 깊고 심오한 내용이네. 누가 쓴 거야?" "루이스 부이어야" 하자 그가 물었다. "부이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야? 감리교야? 침례교? 루터교야? 20가지 질문은 또 뭐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게리, 사실은 그가 천주..."



"잘 안들려 뭐라고?" "그는 가톨릭 교회.." "잠깐만, 연결이 아주 안 좋은 거 같은데, 스캇, 지금 가톨릭 교회라고 말했나?" 나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처럼 말을 쏟아내며 게리에게 말했다. "그래 맞아, 그는 가톨릭이야, 가톨릭 신자라고, 난 그동안 가톨릭 교회 책을 아주 많이 읽었어, 데니얼 루, 랫칭거, 드루 백, 게리구-라 그랜주, 쿡가 등등의 가톨릭교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풍요롭고 신비해, 당신도 꼭 읽어 봤으면 좋겠어." 게리가 어렵게 말했다. "그러지, 나도 그 책들을 모두 읽어 볼게, 당신을 그 수렁에서 구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주는 책 리스트를 스캇, 당신도 꼭 읽어 봐야 해." 그는 나에게 가톨릭을 반대하는 책의 제목들을 길게 알려 주었다. "게리, 난 그 책들을 이미 두 2~3번씩은 더 읽어 봤어." "그래? 그럼 조금 전에 말한 책의 목록을 나한테 보내 줘." 나는 책의 제목들을 게리에게 보냈다. 한달이 지난 후, 게리와 긴 대화를 하는 나를 보며 김벌리는 매우 좋아했다. 드디어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유능한 기사가 와서 내 남편을 로마 가톨릭교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겠구나! 하는 기대로 매우 흥미로와 하며 대화가 끝날 때까지 곁에서 기다렸다. 나는 그녀에게 게리가 내가 알려준 책들을 모두 읽었으며, 그는 내 마음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는 매우 흡족해서 말했다. "와 ~ 대단하네, 난 그가

개종하고 싶다고요? 그냥 장로교 목사로 있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 게리와 나는 몇 달 동안 대화를 계속했다. 장거리 전화로 2~3시간씩 신학과 성경에 대한 토론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4시가 되곤 했다. 김벌리는 게리를 무척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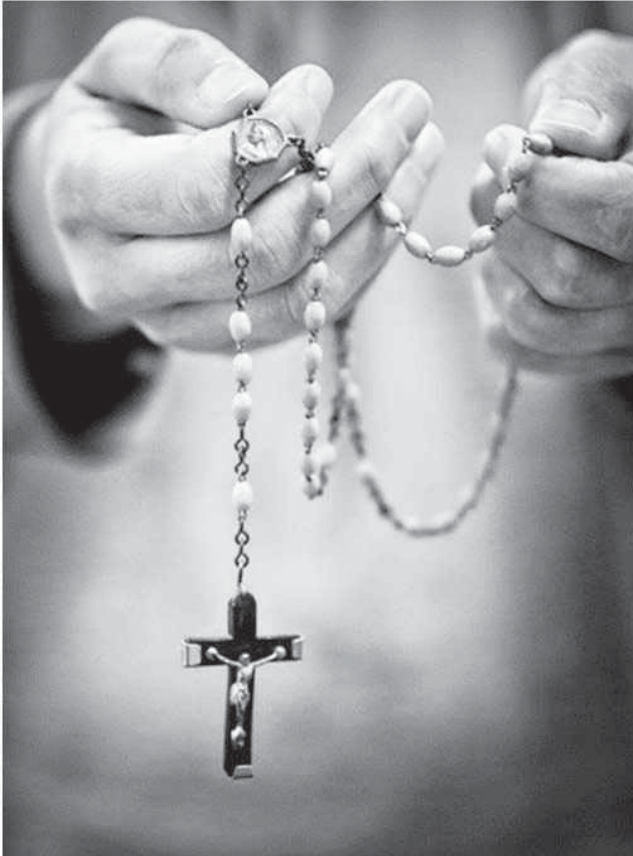
어느 날 밤, 그날도 게리와 대화하다가 새벽 2~3경 안방으로 갔다. 방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김벌리는 자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내게도 말해주세요." "아주 좋아, 게리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성경의 진실에 대해 흥분하고 있고 거의 해독했다." "뭐라고요?"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김벌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흐느끼는 김벌리는 자신이 큰 상처를 받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위로 조차할 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게리가 전화로 내게 말했다. "스캇, 나 정말 겁이나, 우리 친구들도 다 겁을 내고 있어, 하버드에서 공부한 장로교이고 반가톨릭 교회주의자인 잔거스터 박사와 대화를 했어. 그가 우리와 만나서 대화해 주겠대. 같이 가시겠나?" 게리와 나는 거스너 박사와 함께 6시간 동안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된 신약성경 그리고 교회사의 공의 회문헌 등등에 대해 긴 토론을 했다. 우리는 이시간이 지나면 이 천재교수를 통해 우리가 가진 의심들이 전부 해결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가톨릭 교회는 아예 방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사자와 같아서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하니까 스스로 자신을 돌보았다. 우리는 가톨릭 교의 가르침과 성경에 나타난 단순한 내용들을 물었는데, 그 는 우리 질문이나 반대에 단 하나도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끝에 가서 우리는 "와~ 이 모든 것이 무얼 의미하는 거지?" 하고 말했다. 우리 중 누구도 몰랐던 사실에 가장 가톨릭을 반대하는 신학생이었던 우리는 하느님이 가톨릭교인이자 하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 와 중에서도 나는 마퀘테 대학교 (Marquette)에 지원서를 보냈다. 이유는 그 학교가 교회에 대한 연구와 좋은 일도 많이 하며 계약론에 대해 잘 아는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학교로부터 합격통지와 장학금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기 전에, 인근의 가톨릭교회 사제들을 찾아갔다. 나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갔다. 사제관에 들어갈 때는 내 자신이 웬지 지저분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여러가지 질문을 사제에게 했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우리 신학적인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합시다", 하며 아무도 제 질문에 대해 토의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사제는 "개종하고 싶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2차 바티칸 공의회 후에 개종을 권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 제일 좋은 일은 그냥 장로교 목사로 있는 거요."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신부님.." "그냥 나를 '마이크'라고 부르세요." "좋아요 마이크, 당신더러 제 팔을 부르드리고 내 무기를 부수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저를 부르고 계신 것 같다니까요?" 그 사제는 "만약 나에게서 도움을 바란다면 사람을 잘못 찾아온 거요"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제를 3~4명 만난 후,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김벌리는 "당신은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톨릭교회 학교에 가야 해요, 가서 직접 물어 보세요. 당신이 믿는 가톨릭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그렇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오래 기도한 후에 우리는 2년 동안 박사 과정을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밀워키로 이사했다.

묵주 기도를 계속 하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서 지내는 2년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풍요롭게 지냈다. 몇몇 세미나에 참가했지만 나는 가톨릭 신자에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방어하는 유일한 외로운 개신교신자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예를 들면 아주 성경적이며 "계약적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르침에 대해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자 오직 몇 명의 훌륭한 신학자들만이 동조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당시를 정말 즐겼다. 그때 갑자기 두 가지 일이 생겼다. 저는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런다는게 참 두려웠지만 하느님께 내가 하는 일이 반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묵주 기도를 계속 하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느님이 아버지이고 주님과 형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톨릭교회로 개종할 것을 아는 친구가 어느 날 전화로 물었다. "너도 마리아를 가톨릭교회 신자들처럼 흠송하니?" "그들은 마리아를 흠송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거야." "그 차이가 뭐지?" "설명해 볼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사람이 되라는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10 계명에 있는 도덕적인 법을 지킬 의무도 받아 들이셨어. 10 계명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 kaboda는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네 어머니와 아버지께 영예를 드린다는 뜻이야.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계명을 잘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찬상 아버지께도 돌렸고 자신의 신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어머니를 공경하셨어. 크리스, 우리가 묵주기도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머니께 자신의 영광으로 공경 하셨던 것을 따라하는 것일 뿐이야.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공경하는 거야."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예수회의 마케테대학교 지하 성당에 잠시 들어갔을 때다. 정오 미사가 봉헌되고 있었는데 나는 처음으로 미사에 참석했다. 나는 맨 끝 줄에 앉았지만 무릎을 꿇지도, 한쪽 무릎도 꿇지 않고 앉아서 지켜만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40, 50, 60, 80 명 나중에는 백여명에 가까운 일반인들이 들어오더니 정중하게 한쪽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고 자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잠시 후, 종이 울리자 모두 일어 섰고 미사가 시작됐다. 그런 장면을 처음 보았지만 말씀의 전례는 정말 풍요로웠다. 그날은 주일도 아니었는데도 성경봉독뿐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 미사 중의 기도는 모두 성경에 있는 예제키엘과 이사야서 말씀이라서 나는 그 말씀 안에 푹 잠겼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건 뭐야, 이제 쇼쵸 그만하라고, 내가 당신들 기도를 설명해 볼게, 그 말씀은 '예제키엘과 즈가리야'잖아, 와우! 정말 이건 성경이 생명을 지니고 살아 나와서 제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잖아, 이젠 내가 속한 곳인데" 그 다음 성찬의 전례가 시작됐다. 나는 사제가 성체를 축성하고 거양할 때 발음하는 단어들을 주의깊게 들었다. 내가 분명하게 고백하건데, 거양된 성체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동안 내가 가톨릭 교회에 가졌던 모든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 나의 주, 나의 하느님!" 이라고 신앙고백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체를 모시기 위해 줄을 지어 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저는 성체안에 계신 당신을 간절히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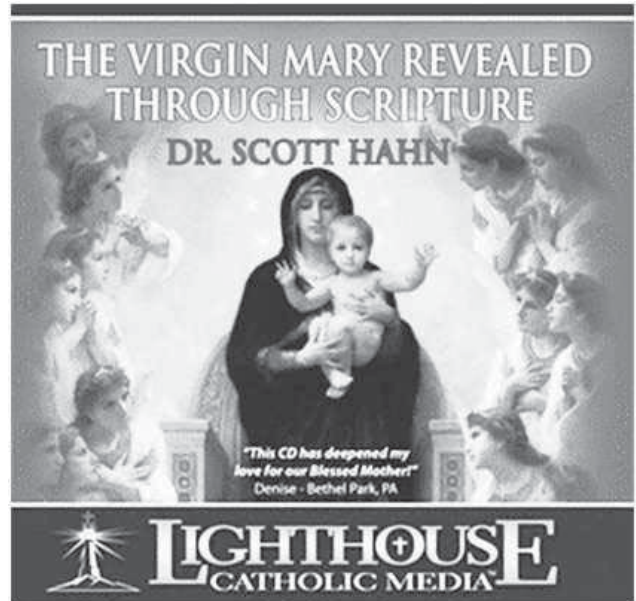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교황님은 영적 아버지이시며, 성인들은 형제자매와 같다는 것을,

합니다. 부디 제안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도 당신을 제 몸에 모시고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제 영혼속에도 당신을 찬미하는 거룩한 성찬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미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1~2분정도 잠시 머물면서 기도하고 갔다. 나는 성당을 나오면서 내가 한 기도를 생각하며 무척 놀랐다. 그러나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나는 매일 미사에 참석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나는 복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하심과 사랑에 푹빠져 있었다. 그것은 내 매일의 삶에서 원천이고 최고였으며 삶의 절정이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킴벌리에게조차 그런 내 마음을 표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게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그동안 수 백권의 책을 읽었다며 말했다. "스캇, 레슬리와 나는 1986년 부활절에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로 했어." 나도 모르게 큰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지금 뭐라고 말했지? 게리, 너 나를 가톨릭에서 구해야 할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를 제치고 먼저 네가 성찬식을 하다니? 이걸 불평등한 거야!" 게리는 말했다. "스캇, 당신이 아직도 반대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받았어."

"게리, 나도 마찬가지야." "스캇, 우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게리의 전화를 끊고 나는 순명을 연기하는 것은 큰 불순명이라고 느꼈다. 하느님께서 성경에서 성모님과 교황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셨다. 고린도 전서 3장 15절에서 연옥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해주셨으며, 성인들을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안에서 내 형제자매로 주셨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친구에게 하느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모든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교황님은 영적 아버지이시며, 성인들은 형제자매와 같다는 것을, 성체는 하느님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며, 축일은 기념일이나 생일과 같은 것 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하느님의 가족인데... 나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 있음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하느님께 여쭙었다.

"하느님,당신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게리는 가톨릭교신자가 된다는데, 당신은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그 때 하느님께서 물으셨다. "스캇, 내가 너에게 어떻



게 해주면 좋겠니?" "하느님, 그건 아주 쉬워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킴벌리, 게리와 레슬리가 무슨 결정했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 거야" 하자 "무엇요?" 하고 물었다. 그녀는 이미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린 상태였다. "두 사람이 1986년 부활절에 가톨릭 교회 신자가 된다는데?" 그녀는 다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눈길로 물었다."그래서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당신은 1990년까지는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킴벌리, 맞아, 내가 약속했지, 그렇지만 당신이 다시 생각해줄 수 있다면..." "오 스캇, 제발... 그건 안돼요, 안돼요." "킴벌리, 당신이 나를 위해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 줄 수 있겠어?" "스캇, 자신이 한 약속을 제발 영적인 문제로 돌리지 말아요..." "킴벌리, 당신이 이 일에 대해 듣지도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더구나 의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나는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큰 불순명으로 느껴져..." 나는 킴벌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불순명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여보,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볼게요. 그러나

때가 되면 거룩 한 성체 안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의 힘을 주겠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진 심정이예요. 당신, 알고 있어요? 내 삶에서 지금까지 혼자가 되어버린 적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꿈이 죽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했고 하느님은 그녀의 기도를 축복해 주셨다. 어느 날, 김벌리가 말했다. "이건 내 인생과 우리 결혼 생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1986년 부활 전야, 나는 성사적인 그랜드 슬램이라고 부르는 조건적인 세례(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와 첫 고백성사, 그리고 하느님을 거양하는 거룩한 성찬식에서 첫영성체를 하는 부활전야 미사에 참석했다. 그러나 김벌리는 집으로 돌아 오면서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 주면서 함께 기도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김벌리의 사랑을 거스르며 가톨릭교회 신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사랑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는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며, 내가 바라는 만큼 그녀를 사랑 할 수 없다. 성령의 힘을 믿어야 한다. 때가 되면 거룩 한 성체 안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의 힘을 주겠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큰 평화를 체험했다. 그리고 김벌리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몇 주와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김벌리는 나에게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우리가 이사가기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셋째 아기를 주셨다. 김벌리가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두려움을 체험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여 마지막 성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백지장 처럼 된 아내가 나한테 기대며 말했다. "배가 아파요... 하혈을 할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자 김벌리는 배를 움켜잡고 의자에 누워 버렸다. 나는 너무 놀라서 당황하며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화했다. 직원이 말했다. "우리는 닥터 매미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주말이라 여기 없을 거예요." 김벌리가 많이 아파요, 그분께 연락을 취해 주시겠어요?" "네, 통화되면 당신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너무 당황해서 성 제랄드와 모든 성인들을 부르며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10초쯤 지나서 전화벨이 울리자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내가 도시 밖에 있는 교회 이름을 알려 주자 그는 "지금 교회에 있단가요?" 하고 물었다. "예배실 밖 공중 전화 부스 안에 있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나는 오늘 아침 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고 지금 지하실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바로 올라 갈게요." 10초도 안돼서 계단을 뛰어 올라 온 의사는 김벌리를 진찰한 후, 차에 태워 성 조셉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고 김벌리와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 딸 해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나는 그 일을 계기로 내 생각보다 더 심하게 상처 받고 있는 우리 결혼생활에 하느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아기를 어떻게 해야하지?" 하고 물었을 때 김벌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아기를 화해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 꼭 안고 같이 기도했다. 해나가 태어난 후, 김벌리가 말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나는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다. "김벌리, 지금 뭐라고 했어?" "스캇,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해나의 세례식에 함께 참가 했고 나에게 세례성사를 주신 브러스키 위츠 몬시놀께서 (현 링컨 교구의 주교) 유아 세례식을 전통과 성경에 가득 찬 거룩한 전례로 진행해 주셨다. 전례가 반쯤 진행됐을 때 몬시놀이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고 전



레 기도를 하자 김벌리가 "알렐루야" 하고 따라 하다 "오, 죄송해요." 했다. 문시놀은 "아닙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아요." 세례성사가 끝나자 아내는 해나의 세례증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부모와 친구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김벌리는 나와 대화할 마음이 없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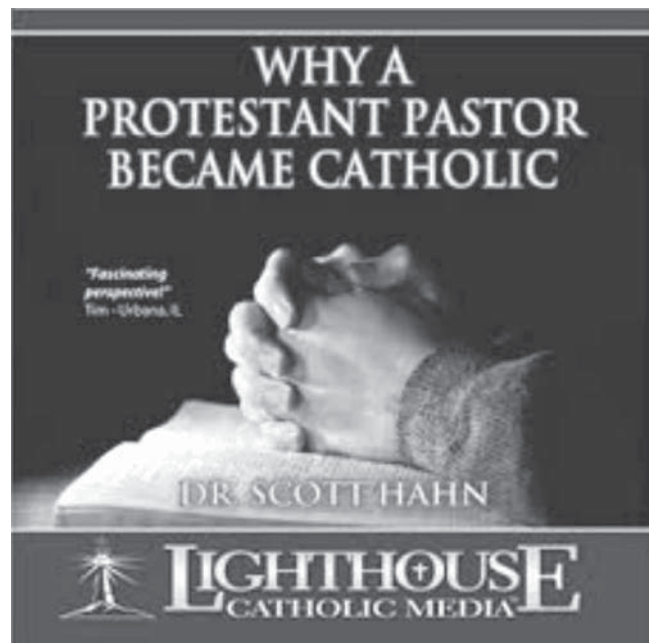
로마 바티칸 방문

Trip to the Vatican in Rome

작년 1990년 12월, 나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1월에 장인께서 동유럽쪽에서 극심한 포르노와 투쟁하는 소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바티칸 학회에 참석한 후에 교황 바오로 2세와 개인 알현을 한다며 함께 가자고 초대하셨다. 장로교 목사인 장인께서 교황을 만나시는데 나를 초대하시니,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다. 작년 1월에 그룹과 함께 교황님을 뵈었을 뿐 아니라 금요일 아침 7시에 교황님의 개인 경당에서 봉헌

하는 미사에 초대를 받았다. 교황님과 불과 몇피트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황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면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교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의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에서 그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지를 느꼈을 것이다. 나는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뵈면서 앞으로 매일 미사 중에 더 깊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두 가지 결심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결심은 그리스도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복되신 성모님을 우리의 영적 어머니로 주신 예수님께서 교황 바오로 2세를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시며, 안내자로 보내주셨다. 하느님께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천상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흠송할 수 있도록 성인 성녀들을 한 형제자매로 함께 이끌어 주시어, 우리를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체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가족이며 그분의 자녀로서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M**



메주고리에는
어떤 곳인가



너희들은 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모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어린 아이들아,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시기에, 사탄은 너희 마음과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 한다. 어린 아이들아, 굴복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아,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4년 1월 25일 메시지)

마리아가 메주고리에서 부모님 슬하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는 그녀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많았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마리아가 이탈리아 말을 유창하게 했기 때문이다. (1983년 4월 그녀의 생일에 성모님 발현이 끝난 후, 이탈리아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악령에 사로 잡혀 시달리고 있는 젊은 이탈리아 여인 하나가 이 마을에 며칠 간 묵으려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태도와 행동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실제로 그녀는 다른 것은 제쳐 두더라도 사탄과 계약을 맺고 몸과 마음을 다해 악령승배에 참여했으며 그 외에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악령에 사로잡히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자비가 충만하신 성모님을 매일 뵙는 마리아의 눈에는 악령에 사로잡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화와 치유를 구하고자 메주고리에까지 찾아 온 그녀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녀를 받아 주기로 했다.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파블로비치 가족들의 생활은 악령들린 여인 때문에 엉망이 되어 버렸다.

이탈리아 여인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악령의 방해는 정말 대단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언제나 침착했다. 물론 깜짝 놀랄 일이 많았지만 참아가며 그녀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다. 같은 때에 이탈리아 신부 한 분도 마리아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성직자와 사탄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다. 예를 들면, 하루는 신부가 그 젊은 여인을 위해 몰래 기도를 하기로 했다. 그녀 앞에서 기도를 하면 마구 화를 내며 날뛰기 시작하므로 그녀가 방에 있는 동안 닫혀진 방문 앞에서 신부는 허공에 대고 십자가를 그었다. 그러자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그녀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날 좀 그만 괴롭히세요!" 또 한 번은 악령에 시달리는 그 이탈리아 여인이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마루에 누워 있었는데 마리아의 친구 하나가 그녀를 위로하고자 곁에 앉아 있으면서 성모님께서 오셔서 이 악령에 사로잡힌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그 젊은 여인은 뜨거운 불에나 데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소리 질렀다. "그 더러운 기도 같은 것일랑 제발 집어 치워요!"

메주고리예가 우리 본당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한 일은 성모님 보시기에 옳았다. 그녀의 인내심과 친절 그리고 모두의 기도 덕분에 여인은 끔찍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젊은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악령도 손을 놓고 풀어 주었다. 그녀는 마음에 평화를 지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성모님과 사탄과의 오래된 대립적인 투쟁은 이곳 메주고리예에서 아주 명백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메주고리예, 하루하루가 전쟁이다."라는 책에서 나는 1984년 8월 5일(성모님의 2000회 생신) 전야 엘레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다. 성모님께서 기도회를 이끄는 간부 몇 사람에게 사탄에 관한 메시지를 엘레나가 내게 말해주었을 때, 나는 너무나도 놀라 온 몸이 얼어붙어 버리는 줄 알았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시 십대 초반인 엘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하루는 사탄이 하느님을 뵈러 와서는 하느님더러 메주고리예를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대신 나머지 세상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했단다." 엘레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물론 하느님께서서는 거절하셨지요! 성모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 속에 메주고리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건 전후배경과 더불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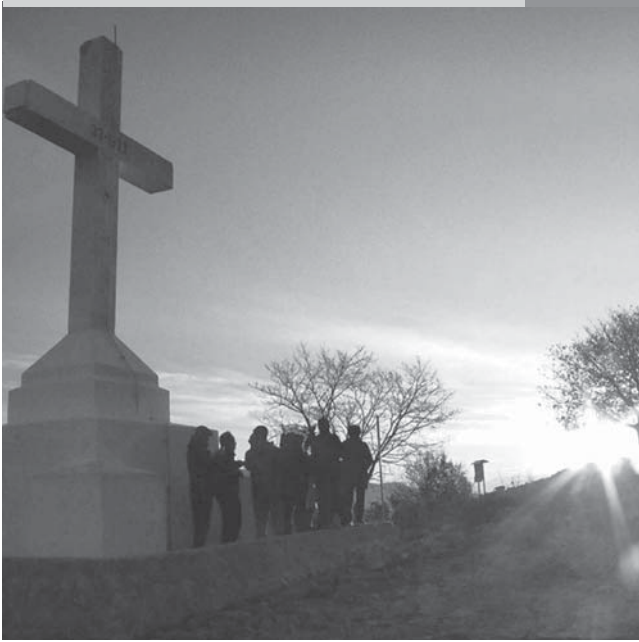
물론 어린 소녀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메시지에 관해서 내 마음이 석연치 못했다. 그렇지만 엘레나는 항상 그녀가 받은 메시지를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전했다. 그래서 나는 기도 그룹의 영적 지도자인 토미 슬라브 블라시치 신부에게 찾아갔다. 성모님도 그 신부에 대해서 "그는 너희들을 잘 인도하고 있다."라고 목격 증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엘레나에게서 들은 성모님 메시지에 관해 묻자 신부님은 그 메시지가 사실 이라고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덧붙였다. "그 메시지에 대해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메주고리예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 우리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셈이지요. 성모님께서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신부님은 내게 다른 메시지도 확인해 주었다. 성모님께서 엘레나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 내용은 메주고리예가 당면하고 있는 가

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탄과 그의 악령들은 내 계획을 망치고자 세계 여러 곳을 떠나 메주고리예에 와서 정착하고 있단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또 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 시키려는 사탄에 대해 성모님께서서는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좋은 어머니가 그렇듯이 성모님께서서는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를 상기 시키신다.

그중 두 가지는 단식과 기도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탄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께서는 성수를 권하신다.

캐나다에서 한 신부님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기 교구 신자들이 메주고리예를 다녀 온 뒤로 단식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진실된다는 것을 자신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구를 맡고 있는 신부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단식에 관해 아무리애를 써도 신자들이 단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신자들이 메주고리예를 다녀 온 뒤로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스스로 단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 주일에 두 번씩! 메주고리예가 우리 본당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지요. 이 일은 메주고리예에 오신 성모님이 아니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교황님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고 악령을 쫓아내는 유명한 신부님이 로마에 살고 계시는데 메주고리예를 다녀가신 적이 있다. 나는 23년간이나 그 일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오신 그분에게 오늘날 사탄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분의





개인적 의견을 물어 보았다. "사탄의 주요 목적은 가정파괴입니다." 라고 그분은 대답했다. "호주에 있을 때 '악마송배자'라는 모임을 조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모든 사회 조직들이 결혼생활을 파괴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지요. 국회만 보더라도 결혼의 신성함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법이 결혼과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령을 쫓는 가장 강력한 분"이 성모님이라고 이 신부는 말한다.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분이다. 이분에 의하면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평신도들은 우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을 성당으로 데리고 와서 축성을 받은 성모상 앞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을 쳐부수는데 있어서 성모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신부는 종종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신부는 또한 성체 앞에서의 기도도 악령을 내어 쫓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을 체험했다. 악령 들린 사람을 십자가상 앞으로 데리고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체 안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 처음에는 예수님 쳐다보기를 거절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눈을 감아 버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만 악령을 내쫓는 다음 단계가 더욱 중요하다. 악령 들린 사람과 계속 가까이하면서 하느님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구 마경은 성직자들

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평신도가 사탄과 대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메주고리에의 또 다른 증인 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주고리에? 그곳은 성모님의 발뒤꿈 치랍니다! 성모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쳐부수시는 곳 이지요." 6명의 목격 증인들 중에서 사탄과 직접 대면 해본 사람은 미리야나 뿐이다. 사탄이 성모님 발현 직전에 미리야나에게 찾아 왔다고 한다. 그녀는 너무도 무서웠다. 그는 잘 생긴 얼굴에 매력적이었으나 눈은 빨강계 충혈되어 있었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미리야나는 그에 관해 물으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으니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고 했다. "우리는 모두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미리야나가 말했다. 나는 마르프 로맹이 프랑스 철학자인 장기퐁에게 했던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왕은 언제나 화를 내고 있지만 일단 성모님께서 나타나시면 사탄은 아무 것도 못하지요. 성모님은 얼굴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이 너무도 아름다우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도 흉내를 낼 수 있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수난하시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의 모습은 흉내 내지 못하지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성모님께서 나타나시면 사탄은 별별 떨게 되는데 이 모습을 당신이 볼 수만 있다면 웃음을 참지 못할 거예요." 왜 사탄은 메주고리에란 말만 나오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걸까? 그것은 성모님께서 한번 나타나실 때마다 사탄이 자신의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이 메주고리에에 대해서 그토록 악착스러운거란다."라고 성모님께서 미리야나에게 설명해 주셨다. 교황 레오 8세와 199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신자들이 미사 후에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를 드리도록 권장하셨다.

"성 미카엘 대천사여, 오늘날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악마의 유혹과 사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겸손되이 기도드리오니 천상 군대의 사령관이신 미카엘 대천사여, 영혼들을 파멸시키려고 온 세상을 두루 헤매는 사

탄과 그를 따라 다니는 사악한 악령들을 하느님의 권능으로 지옥에 떠 밀어 넣어주소서."

성모님을 천사들의 여왕으로 추대하는 또 다른 강력한 기도문도 있다. 이 기도문은 1908년 6월 8일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승인되어 인쇄물로 출간하였다.

"오 고귀하신 하늘의 여왕이시여,
천사들 중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임무와 능력을
태초부터 하느님께서 받으신 분이시여,
우리가 당신께 엎드려 기도드리니
당신의 성스러운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의 지휘와 능력 아래
지옥의 영들을 쫓아내어 주옵소서.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악한 그들을 물리쳐주시고,
지옥의 깊은 구렁으로 쫓으소서.
하느님 앞에 당신과 같은 분이 또 있겠습니까!
오 인자하신 어머니,
언제까지나 우리의 사랑과 희망이 되어주소서.
오 성스러운 어머니,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시어
저를 지켜 주시고 사악한 마귀를 쫓아내어 주소서."
"거룩한 천사와 대천사들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M**

- 메주고리예의 기적 성심의 승리 / 임마누엘 수녀 / 엠 미르출판사

2016년 12월 2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아, 엄마인 나는 내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마음으로 울고 있다. 죄는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영혼의 순수함은 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내 아들 예수님은 점점 잊혀져서 공경을 더 받지 못하며, 내 자녀들은 박해를 받고 있구나. 사랑의 사도인 내 아이들아, 그러니, 너희들은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내 아들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은 너희에게 빛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함께 빵을 쪄개시며, 너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신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사랑의 행위로 변화시켜서 진리를 증거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도록 해드려라. 그분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 드려라. 내 아이들아, 묵주기도 예로 돌아 오너라. 선함과, 희생, 자비로운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하여라. 입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여라. 내 아들은 당신의 희생으로 사랑을 들어 높여졌다. 그러니 힘과 희망을 갖고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는 사랑을 지닐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살아라. 하느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도 너희와 함께 하며, 엄마의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고맙다."

* 미리야나는 성모님께서 매우 슬퍼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



그를 하느님의 손에 맡겨라

베드로 신부의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체험기

2004년 초, 나는 그 전 해 9월에 주교님으로부터 뉴저지 서부에 있는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다. 나는 주임 신부로서 본당의 모든 신자들을 다 만나려고 바쁘게 다니고 있었지만 톰과 카힐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그 때 전 본당 신부님이 복사중 한 사람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하며 놀라지 말고 누군가 그를 옮길 것이라는 말을 해주셨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병원에 있는데 방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였다. 병실에서 어린 소년이 침대에 누워있고 그 옆에 엄마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년에게 성유를 발라 준 후 기도해 주고 예수 성심 상분을 주었다. 몇 주 동안 지켜보니 그 소년은 놀미사에 오는 것도 아니고 복사도 안했다. 미사가 끝난 어느

날, 소년의 엄마인 메리가 성당 앞에서 몇 명의 여교우들과 함께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으나 '침대 문제' 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뭔가 그 이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메리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대화를 했다. 그녀는 톰에게 무서운 일이 생겨서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마주 할 힘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어느 주일 오후, 톰의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사제관에서 DVD를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톰의 아버지인 데이빗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주고 톰과 메리를 데리러 올 때였다. 집에 갈 시간이 되자 갑자기 톰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매우 난폭해졌다. 팔걸이 의자에 앉은 채 눈을

무섭게 잔뜩 찌푸린 채 말이 없던 톰이 갑자기 어떤 시가 보인다고 하며 공포에 사로 잡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나 놀랐다. 잠시 후에 톰이 진정될 때 데이빗이 와서 차에 태우고 갔다. 메리는 놀라고 있는 나에게 이번은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들이 떠난 후 톰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가족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톰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상의할 수 있었다.

2004년 5월, 일요일에 성당에서 사제관으로 가는 길에서 나도 모르게 가던 길을 바꿨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그들에게 가보거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날은 내가 뉴저지 성당으로 발령 받은 후 처음으로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기 전의 주일이었다. 나는 톰의 집으로 가서 메주고리에 순례를 하는 일주일 동안 전적으로 톰을 위해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 보았다. 일주일 동안 톰을 위해 기도한다는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톰이 말했다. "네 좋아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뉴저지에서도 같이 기도하기로 동의하면서 7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 서로 영적다리를 만들기로 했다. 메리는 톰의 사진을 나에게 주면서 순례 중에 꼭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순례를 떠나기 전 수요일, 메리는 톰이 공포와 난폭한 행동, 그리고 환청 때문에 매우 무서운 발작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녀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목요일 날, 나는 25 명의 그룹과 함께 메주고리로 순례

를 떠났다. 그 날 오직 두 사람 만이 내가 이번 순례를 가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 나는 톰을 위해 매일미사와 기도를 했지만 특히 목주 기도를 열심히 했다. 나의 6번째 메주고리에 순례였지만 그때처럼 성모님께 대한 신뢰 안에서 기도에 집중한 적이 없었다. 순례 중 어느 날, 우리는 발현 초기부터 메주고리에 본당에 계셨던 요조 신부님을 방문했다. 나는 신부님께 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전하고 특별한 기도와 강복을 청했다. 요조신부님은 한 손을 톰의 사진에 대고 다른 한손은 내 어깨를 감싸며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다. 순례 중에도 메리가 톰의 소식을 자주 전해주었는데 우리가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톰이 발작을 하지 않은 날들이 있었다고 했다.

2004년 5월 21일 금요일에 우리 순례팀은 성모님이 오시는 발현산에서 목격증인 이반과 함께 있도록 초대받았다. 모르고 있었지만 특별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은 서로 멀리 있어도 우리는 공간을 초월한 기도안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톰과 메리에게도 같이 기도하도록 성모님 발현 시간을 미리 알려 주었다.

나는 톰의 사진을 가슴속에 품고 성모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며 발현하시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저녁 10경, 발현 목격증인 이반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 성모님 발현이 끝난 후, 목격증인 이반이 통역을 통해 성모님 메시지를 전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날 특히 그곳에서 참석한 이들이 청하는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중재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내가 숙소로 돌아 왔을 때 메리로부터 톰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니 이제는 그를 하느님의 손길 맡겨라."

(뉴저지로 와서 톰에게 있던 일을 자세히 들었다.) 순례가 끝나기 전인 수요일, 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톰의 사진을 주머니속에 넣고 폴 클레어와 폴부제와 함께 14처 기도를 하며 크리자밭 십자가 산을 올라 갔다. 오후 2 시경은 산을 오르기에는 무척 무더운 날씨였지만 우리는 십자가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 톰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십자가 산의 정상에 있는 슬라브코 신부님의 기념비 앞에 멈추었을 때, 나는 톰의 사진을 기념비 앞에 놓고 가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톰의 사진을 신부님의 기념비 아래 놓고 중재기도를 청하고 산을 내려왔다.



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영적인 도움과 지원이 많이 필요한 톰을 위해 기도하 면서 나의 삶도 변했다. 메주고리에 순례전에는 묵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웠지만 2004년 5월 순례 후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묵주기도를 하면서 부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자신의 삶 안으로 초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뉴저지 본당에서 지속적인 성시간과 성체조배와 묵주기도를 하면서 어린이처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톰과 나의 메주고리에 순례 체험이 영적 사막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M**

(<http://blog.naver.com>에서)

메주고리에 있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도 안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톰을 십자가 산에 두고 오는 것처럼 아쉬웠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니 이제는 그를 하느님의 손길 맡겨라." 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느끼고 깊은 사랑과 신뢰안에 감사 기도를 했다. 순례가 끝나고 뉴저지에 오니 엄청난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톰이 몇 달만에 처음으로 한 주일 동안 발작 증세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메주고리에 순례때부터 지금까지 톰은 전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지 않았다.

2005년 5월에는 톰과 메주고리에 순례를 했다. 지금도 계속해서 톰과 가족을 기도로 돕고 있지만 특히 그 해는 톰과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많았다. 톰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도움을 청했다. 톰이 약을 완전히 끊는 과정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건강한 14 살의 청소년으로 살고 있다. 한동안 끊겼던 정상적인 삶과 성장 과정에 많은 부족한 것들과 또래 보다 많이 뒤떨어진 교육을 보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오세완 바오르
 자문위원단 : 오세완 신부, Fr. John McFadden, 김한기 신부,
 :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흥연수 선교사
 웹관리자 : 남 미카엘라, 박 로사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문 로사리오, 정 데레사, 강 로사
 : 엄 엘리자벳, 박 로사

미국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성모님, 제 뜻을 드리오니 하느님의 뜻을 저에게 주십시오

순례자 엄 엘리사벳

오래전 영성에 관한 책들에 몰두해서 읽고 있었을 때, 우연히 메주고리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는 책을 읽었다. 그 당시 나는 많은 내면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그 책들을 읽으면서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들... 꼭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수첩을 만들어 성모님 메시지를 옮겨 적어 놓았다. 그때부터 메주고리에는 나에게 특별한 곳으로 마음 안에 자리 잡았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볼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가고 이번 2016년 여름에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함께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 대회에 참석한 후에 크로아티아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다. 이번 여행길에 있을 힘든 과정들은 생각도 못한 나는 성모님이 계시는 메주고리에 간다는 생각에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다리며 설레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드렸다.

드디어 메주고리로 향하는 날!! 새벽 일찍 가족들과 인사하고 공항에 나가 짐을 부치고 기다렸다. 탑승 시간이 됐는데 휴스턴에서 샤프트로 가는 비행기가 연료가 새어 고치는 중이라서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했다. 웬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난 후 무사히 탑승하게 되었고 샤프트에 도착 했다. 이번에는 뉴욕행으로 환승해서

가는 중에 기관장이 지금 날씨 관계상 비행기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도착을 하고 나서 내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Air train을 타고 드브로닉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 수속을 하려고 가니 10분이 늦어서 안된다고 한다. 순례팀은 지금 비행기에 탑승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된다니... 결국 지금은 탑승이 안 되니 다음 비행기로 오라고 급하게 전화로 통화한 후 모두들 떠났다.

이제부터는 완전이 나 혼자였다. 그때부터 뭘 해도 안되고 머피의 법칙을 따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타려고 했던 Airline에서 상황 설명을 하고 대책을 세우려는데 카운터에 있었던 직원의 그 무례함과 불친절과 거만했던 몸짓과 표정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었고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마찬가지였다. 하나 같이 어찌면 그리 불친절하고 무례한지... 그 사람들은 마치 내가 그 비행기를 타면 안되는 원수라도 되듯이 너무나 불쾌하고 무례하게 대했다. 처음엔 다음 비행기로 가면 추가비용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꼭 가야 한다는 생각에 좋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에 좋다고 했다. 잠시 항공사 직원들끼리 컴퓨터로 된다, 안된다 실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면 변하게 해주시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량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불친절함의 강도는 더욱더 심해졌다. 들어 보지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남 그레고리오 단장님하고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항공사에 전화를 했으나 도무지 연결이 안 되었다. 다시 그 항공사로 가서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니 이젠 아예 듣지도 않고 오히려 더 무례한 행동을 하며 쳐다 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했다. 나는 승객에 대한 그렇게 거만한 행동들을 하는 그들을 이해 할 수가 없어서 매우 속상하고 불편했다.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침착하게 항의하니 들어 보려고조차 하지 않고 손으로 나를 막고 무시하면서 비키라고 하며 다음 승객을 불렀다. 말도 안되는 상황에 화가 났지만 그 사람들과 더 이상 말을 할 가치를 못 느껴서 한시라도 더 그곳에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4시간 정도를 허비하고 난 다음 상황을 알아 보려고 처음 타고 온 항공사 데스크로 갔다. 그런데 날씨가 나쁜 탓으로 비행기들이 모두 취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앞과 뒤에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니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몇 시간 뒤에라도 갈 수 있었다. 나도 다른 항공으로 연결해 주겠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지만 해외라서 연결이 안 되겠다고 하며 유감



을 표했다. 그렇게 7시간을 기다렸다. 밤 12시가 넘어 항공사 직원에게 재확인 하니 방법이 없다고 한다. 어렵게 매니저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항공권도 호텔도 해 줄 수도 없다. 그는 매우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한다. 이젠 정말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휴스턴 비행기라도 타게 해 달라고 하니 미안하지만 좌석이 없어서 대기자로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다. 그 직원에게 내 상황을 말했다.

지금까지 공항 안에서 있었던 일들과 내가 가야 할 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소중한 큰 의미가 있는 곳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지... 그렇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집에 돌아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항공사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컴퓨터로 알아보더니 내일 JFK에서 샬럿으로 가는 일정으로 대기하고 샬럿 공항에서 또 대기하다가 휴스턴으로 돌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한다. 나는 도와 줄 수 없다는 그 사람의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 직원도 휴지를 내게 건네면서 함께 울었다. 너무 힘들고 지친 하루였는데 진심어린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안아주면서 제일 급한 대기자로 명단에 올려놨으니 빨리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공항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왜 차가운 공항바닥에 앉아 있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고 많이 울적해졌다. 집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하고 내일 집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엄마는 많이 걱정하시며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식구들도 많이 걱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하느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조심히 돌아오라고 했다.

남 그레고리오 단장님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전해 드리고 내일 대기자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휴스턴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더니 기도해 주신다고 했다.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몹시 피곤했다. 줄을 서 있다가 오랜 시간 함께 기다렸던 여자를 다시 만났다. 서로 잘 가라고 인사를 나눴



는데 또 만나게 되어 서로의 상황들을 나누고 그 때부터 함께 있었다. 탑승 수속을 같이 한 그 친구는 31번 게이트, 나는 같은 방향인 37 게이트였다. 그는 지금 North Carolina에서 남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하고 나는 메주고리에서 순례팀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하며 우리는 서로 힘든 푸념을 하다 어이가 없어서 큰소리로 웃기를 몇 번씩 반복하며 밤을 꼬박 새웠다. 그 친구가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는 동안 한쪽을 바라보니 멀리서 한 남자가 간단한 손가방을 들고 오는 게 보였다. 로만 칼라를 보고 혹시 신부님이신가 하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내가 있는 쪽의 코너에 돌아 자리를 잡고 앉는게 아닌가. 바로 일어나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가톨릭 사제이시냐고 물어 보니 반가운 마음에 그렇다고 하신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으시냐고 하니 좋다고 하시며 손짓으로 옆에 앉으라는 사인을 주셨다. 나는 그분 옆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그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 신부님은 한참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내 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걸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실 것이며 언젠간 꼭 충분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해주셨다. 내가 기도해달라고 청하자 신부님은 흔쾌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같이 한참을 기다리다보니 어느새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그 친구와 서로 작별인사를 하고 나는 탑승을 했다. 서로 같은 처지에서 힘들 때에 함께 있어서 더 정이 갔다. 난 비행기를 타고 샬럿으로 떠났다. 좁은 자리에 체격이 큰 두 남자 사이에 끼어 앉았다. 밤을 꼬박 새웠는데 자리조차 편안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했지만 성모님께 기도드렸다.

"성모님, 제 뜻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하느님의 뜻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보다. 눈을 뜨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을 건다.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시작했다. 샬럿에 집을 사서 마지막 사인을 하러 간다고 하며 자신이 하는 일들과 사진들을 보여 줬다. 나에게 물어서 그 동안 내 얘기를 하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하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느님을 알고부터 좋아하는 문구가 있다면서 목걸이를 보여 줬다. 그 남자의 목걸이에는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면 변하게 해주시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라고 적혀있었다.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몽클했다. 그 사람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비행기가 도착했다. 나는 휴스턴행 비행기에 대기자 등록을 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내 앞에 두 명만 불러 탑승시키고 문을 닫았다.

이제는 조급한 마음도 들지 않았다. 대기자는 열 명이 넘었고 또 다른 긴 기다림이 시작 되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내 이름을 부르니 함께 대기하던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축하 해주며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도 손을 들어 인사 하고 드디어 휴스턴 행 비행기를 탔다. 탑승 후 보니 그레고리오 단장님한테서 휴스턴 도착 후 즉시 연락 바란다는 메시지가 와있었다. 휴스턴에 도착을 해서 짐 가방을 찾고 걱정하는 엄마한테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렸다. 그레고리오 단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이스탄불로 가서 사라예보에 도착하는 항공표를 구입했다고 하시며 당코라는 기사가 마중 나갈 거라고 하셨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꼭 가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단장님 부담으로 표를 샀다고 하시며 항공권을 이메일로 보냈으니 메주고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나는 너무나 감사했다. 바로 이메일을 열어보니 터키항공으로 가는 이스탄불행이었다. 엄마께 전화를 걸어 다시 메주고리로 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엄마는 밤새 너무 걱정하셨다고 하시며 이번은 아닌 것 같으니 무리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엄마에게는 죄송했지만 난 성모님이 기다리시는 메주고리로 꼭 가야했기에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 잘 설명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젠 터키 항공사를 찾아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위험한 소식들과 함께 터키로 가는 이스탄불행 비행기가 과연 안전할까 하는 걱정들... 그래도 꼭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터키 항공사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키가 큰 중동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터키 항공사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자기도 이스탄불로 간다고 한다. 지금 터키 상황이 위험해서 가족들은 있고 자기만 다녀올 거라고 한다. 또 불안했지만 같은 방향의 비행기를 타는 친구를 만나 반가웠다. 그 분은 기내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기는 오크라호마에서 왔는데 나와 같은 상황으로 그 전날 출발하지 못하고 휴스턴에서 하루 지내고 지금 떠난다고 한다. 함께 터키공항에 도착해서 사라예보행을 체크인 하려고 하니 내 티켓이 문제란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전화를 걸어 물으니 내 티켓이 그냥 취소됐다고 했다며 자기네들도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한다. 당일 출발로 구입해서 비싼 항공료 비용을 단장님이 내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했고 그레고리오 단장님도 최선을 다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었다. 단장님께 전화를 해서 내 마음을 말씀 드리니 "그럼 안타깝지만 내 마음만 함께 해서 여행 중에 기도해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급하게 단장님께서 지금 다시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으니 무조건 메주고리예로 오라고 하셨다. 나랑 이야기하면서 항공권을 다시 또 구입하신 것이었다.

같이 기다리던 친구도 무척 기뻐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스탄불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 친구와도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사라예보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런 나의 긴 여정들을 마치고 사라예보 공항에서 그레고리오 단장님이 보낸 택시를 탔다. 메주고리예로 들어가는 길은 어두운 밤이라서 밖이 보이지 않았지만 무사히 왔다는 것에 감사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순례팀들과 그레고리오 단장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그분들의 걱정과 기도의 힘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메주고리예에서의 순례는 너



무나 은혜롭고 행복했다. 거룩한 미사, 영혼이 씻기는 고백 성사, 미사, 성체조배, 찬미와 기도,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언덕, 그리고 십자가 산에서 예수님의 14처 고난을 묵상하며 올라갈 때의 체험,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경치 등등 모든 순례 일정들이 너무 좋았다.

지금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쁘게 지낸다. 얼마 전 성인이 되신 켈커타의 마더 데레사가 하신 "가장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을 담아서 하라"는 말씀대로 살면서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싶다. 메주고리예는 내게 언제나 특별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메주고리예에서 순례했던 체험보다 그곳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은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었음을 크게 체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때에 그때그때마다 성모님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다. 메주고리예 체험담을 나누면서 나의 여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 해주신 우리가족들, 97차 순례단원들 그리고 흥 마리아 자매님과 메주고리예 성지순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미카엘라 자매님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항공권을 다시 구입하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주신 남 그레고리오 단장님의 도움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성모님께도 감사드린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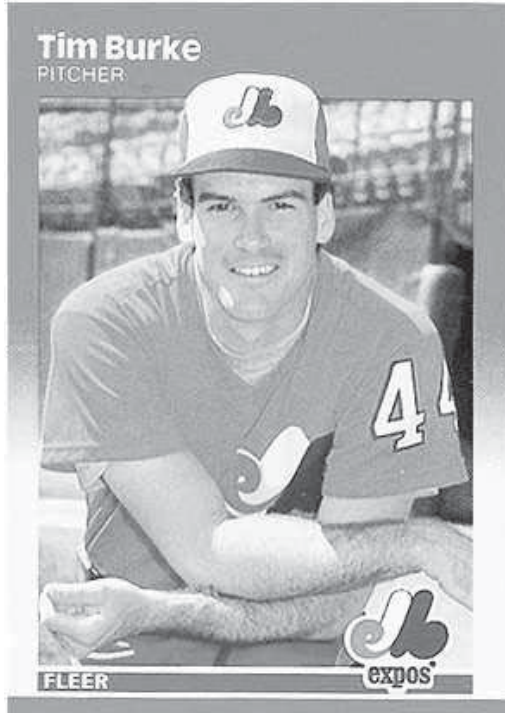
뉴욕 메츠의 투수이자 몬트리올 엑스포의 구원투수로 명성을 날린 유명한 야구선수 팀 버크의 이야기이다.

메이저 리그에서 명성을 떨치던 이 선수가 34살, 한창 잘 나갈 때 직업과 돈을 버리고 어느 날 야구계를 조용히 떠났다. 그때 그가 받고 있던 연봉은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2억 원이었다. 그는 은퇴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도 없이 조기 은퇴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매우 놀랍다. 다섯 명의 입양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은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입양한 아이들이 모두가 장애아였다.

큰딸 스테파니는 한국에서 조산아로 태어나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수술을 시키기 위해 딸로 입양했다. 둘째 라이안은 과테말라 남자 아이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다. 셋째 니콜은 첫째 스테파니처럼 한국 여자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며, 간질이 있어 하루에도 수십번 발작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데려와 입양했다. 넷째 웨인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베트남 남자아이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였다. 다섯째는 둘째 라이안 처럼 과테말라에서 태어난 여자다. 이 아이는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채로 태어나는 구순구개열이란 소아 선천성 질병이 있어서 버림 받았는데 딸로 입양한 후 치료해 주었다. 버크 부부는 앞으로 다섯 명을 더 데려오기 위해 방이 9개 달린 집을 지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지난 91년 7월에 몬트리올 한 병원에서 니콜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 때 버크는 몬트리올 엑스포팀에서 뉴욕 Mets로 이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떠나야 했다. 수술을 받은지 1시간도 못되어 사경을 헤매는 딸을 지켜 보느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를 남겨 두고 뉴욕을 향할 때에 그는 은

운명을 바꾸어 놓은 그리스도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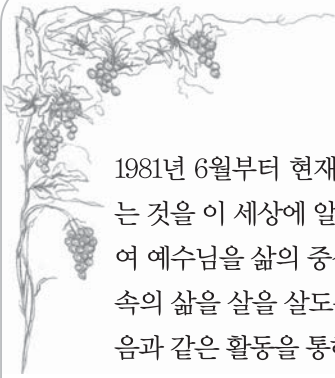
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내가 있을 곳은 야구장이 아니고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가정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버크는 이제 아이들 곁으로 돌아 갔다. 낡은 부모도 돌보기를 꺼린 버림받은 생명들을 스스로 맡아서 돌보기 위해 그는 관중들의 환호와 인기와 돈과 직업을 버린 것이다.

그를 찾아간 기자들에게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없어도 야구는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아버지인 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봐 줄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던 버크의 아내도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원치 않는 아이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누군가 돌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

로 그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운명이니깐요.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버크 부부는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로 행하였더니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시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책속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내 안에서 살아 숨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내 삶을 그려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나요? **M**

(<http://blog.koreadaily.com>에서 발췌)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에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5. 메주고리에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6. 메주고리에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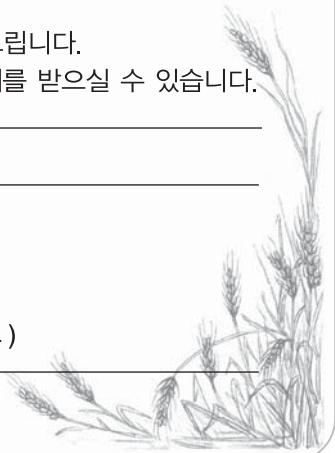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 2. 메주고리에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3. 회원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미사와 성모송 천 번 기도봉헌과 미사를 해드립니다.
-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발현 목격증인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안내

미국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WELLS FARGO
 송금번호: ABA# (031201467) Acct.# (2000012394184)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 카톡 평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CP) : _____ E-mail : _____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제 74호 발행을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현주, 강용자, 강인희, 강윤경, 강미아, 강미, 강신정, 강로사, 광로사, 김헬레나, 김테레사, 김로사, 김다리아, 김정희, 김정자, 김금성, 김경림 & 이홍재, 김재문 & 유춘옥, 김호영, 김제랄드, 김프란치스코, 김은영, 김혜림, 김인순, 김경희, 김경미, 김리나, 김덕호, 김부자, 김영주, 김영희, 김난영, 김제니, 김지니 세실리아, 김세이, 김수희, 김형화, 김헨리코 & 로사, 김진평, 김주리, 김건일, 김마데라, 김미숙, 김아습다, 김인숙, 김은희, 김인희, 김현심, 민석 아그네스, 민영희, 민현희, 민병돈, 민규동, 민정숙, 민 마리아, 문로사리아, 무명, 박지영, 박기용, 박수미, 박세용, 박광국, 박기애, 박영희, 박유미, 박요세피나, 박낙주, 박준희, 박길재, 박혜영, 박마리아, 박테레사, 박모니카, 박아네스, 박수원, 박연희, 박영순, 박홍숙, 박한영, 박제임스 & 마리아, 박프란체스카, 배태자, 배달진, 배지영, 백성자, 백윤영, 배영진, 백수산나, 방옥순, 신연자, 신카타리나, 서그레이스, 서주을, 성유경, 송정자, 송조셉, 성부전, 선우용근, 선우 마리아 막달레나, 산토 데텔, 송마리아, 성시용, 임성수, 염로사, 임미정, 임세레나, 엄선윤, 엄베로니카, 안영진, 안희숙, 오점희, 오현의, 유소은, 유미영, 윤금순, 윤헬레나, 윤예선, 원태분 & 원정, 예수중, 안태현, 이순세, 이선희, 이정희, 이정, 이정선, 이정오, 이종덕, 이준모, 이금자, 이찬기, 이경자, 이로사, 이송자, 이엘레사벳, 이안젤라, 이인옥, 이마리아, 이비비안나, 이복선, 이글라, 이마리아, 이명숙, 이바오로 & 마리아, 이경혜, 이일영, 이테레사, 이유리, 이윤해, 이영숙, 이덕희, 이현주, 이황순, 이해전, 이스테파노, 이세실리아, 이선옥, 이윤영, 이분숙, 이범진, 어명희, 아가다 필립스, 장레지나, 장득량, 장영희, 장미심, 장세운, 장데보라, 장대철, 장조셉, 전경순, 전잠마, 전종례, 정태만, 정윤도, 정윤희, 정원숙, 정윤미, 정계숙, 정희순, 종순, 정센들만, 진도미니카, 주옥인, 주김, 주청, 조안나, 조영랑, 최진욱, 최수산나, 최테레사, 최미카엘라, 최스텔라, 최희순, 최현수, 최상환, 최인순, 최봉열, 최혜선, 최익기, 차정애, 차로사, 전현숙, 전진숙, 지주디, 지영덕, 진정완, 주순덕, 조선아, 황신디, 한동훈, 홍연수, 한영주, 홍수원, 홍점마, 홍정희, 한정애, 한미경, 허명순, 구희은, 도우정, 도루시아, 표현경, 태영균

Angela Bertke, Aekyong Cynthia Ziegmann, Dong & Cheong, Henry Yerger, Lucille Nazzario, Inhui Cleveland, Tavic Lee Tauko, Kang, Mee R, Kim, Keith & Keum Benson, Sonchaallen, Garnel Joseph, Oksoon Njuyen, Goldland Jewelers, Oksunkarosas, Henryyerger, Sang Goe, Yon Johns, Sanghee Sophia Jacobs, Rosa Park Watson, Sunnie L Mercer, John Wisoon Kang, Sun Hui Simpson, Sonia Marsha Ginn, Janet Heewon Lee, Lucia Burroughs, Onedera, Ruoff, Anne & Andrew, Yun Hae Seaman, Young Odonnell, Yoekyung Angela Chi, Young S Chi, Un Hui Kim



설터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마주했을 때 그대의 영혼 안에 행복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거듭 말하노니, 기쁘고 용감하게 사십시오.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오직 착한 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오상의 비오 신부 어록에서)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성모님 발현지 성지 순례



발칸반도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닉, 몬테네그로, 슈르만치, 메주고리에

- ▶ 2017년 3월 9일~20 (11박 12일)
- ▶ 순례비 : \$3,250 (순례진행비 \$2,150+\$1,100뉴욕 JFK공항 항공료)



메주고리에, 슈르만치, 드브로브닉 사순절 피정 성지 순례

- ▶ 2017년 3월 12일 ~ 20일 (8박9일)
- ▶ 순례비 : \$850 + \$680 뉴욕 JFK출발 항공료
- ▶ 항공료는 12월 8일자 인터넷에서 공시된 요금을 참고했으며 구입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주일 참석 및 이스라엘 광야 체험 성지순례

- ▶ 2017년 3월 30일~4월 10일 (11박 12일)
- ▶ 순례비 : \$2,790 (뉴욕, 워싱턴 Dulles 공항 출발)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루르드,이태리 성지순례

- ▶ 순례비 \$3,290 뉴저지 (EWR) 공항 출발
- ▶ 2017년 5월 14일~25일 (11박12일) -메주고리에 5일 순례 추가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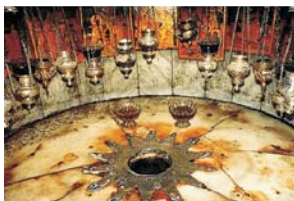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36주년 기념 및 슈르만치, 드브로브닉 성지순례

- ▶ 2017년 6월 20일~30일 (10박 11일)

제28차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대회 및 발칸반도와 크로아티아

- ▶ 2017년 7월 26일~8월 7일(11박 12일)



문의 T. 201-945-4777 C : 917-626-4314 www.qpmm.org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무료보급과 "신앙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사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체입니다.